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 수업딜레마 연구[†]

성유빈* · 홍미성** 우석대학교 · 홍혜전*** 서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중등학교 무용 예술강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업딜레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반복적인 수업 구조와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예술강사들이 어떻게 교육적 의미를 재구성하며 성장해 나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였으며,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중등 무용 예술강사 5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원자료화, 의미 단위 분석, 범주화 및 내러티브 재구성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예술강사들이 경험한 수업딜레마는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시간표 조정, 수업 공간 부족, 협력교사의 낮은 이해 등 학교 환경과의 갈등, 둘째, 학생과의 감정적 소통, 창작 수업 반응 저조, 부적응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 수업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셋째, 반복되는 수업 내용, 고용 불안, 정체성 혼란 등 개인 내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강사들은 연수 참여, 수업 개선 노력, 동료 강사와의 소통 등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일부는 예술가 정체성 회복이나 전공자 양성 등 진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예술강사가 단순한 강습자가 아닌, 교육적 실천의 주체임을 보여준다. 예술강사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들의 서사를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는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예술강사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중학교, 학교예술강사, 무용교육, 수업딜레마, 내러티브 탐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2000년에 국악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가 추가되면서 5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이후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가 포함되어 총 8개 분야로 확장되었다(김소연, 2019; 김지안, 홍애령, 정경원,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교육 전문성을 갖춘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 가운데 무용분야 학교예술교육은 2005년 처음 도입되어 약 20년간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무용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무용수업은 공간, 시간, 참여 태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업의 성패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김소연, 2019; 이선민 외, 2020).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초기에는 예술강사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박 3일간의 집합연수를 운영

[†] 이 논문은 2025년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무용분야 학교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dbqls2115@naver.com

**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dancer607@daum.net

***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hyejeon007@hanmail.net

하였고, 이를 이수한 예술강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 투입된 이후, 각기 다른 교육 환경과 학생 특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무용분야의 경우, 교사와 예술강사 간 협력 부족, 수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입시 중심 교과과정과의 괴리로 인한 학생들의 낮은 참여율, 예술강사 개인의 교육적 접근방식 고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김영미, 2010; 김소연, 2016; 이선지, 2010; 홍하나, 201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사업 초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으나, 연구가 완료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부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교육 경험은 단순한 운영상의 이슈를 넘어서, 예술성과 제도, 교육성과 현실 사이의 긴장과 충돌을 드러내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와의 협력수업 추진은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교사의 무용 이해 부족이나 학교 업무 병행에 따른 시간 제약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용분야 예술강사들 또한 기존 입시 및 공영 중심의 훈련 체계에 익숙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김소연, 2016).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무용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업 시스템의 변화나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지은(2009)은 무용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변화를 강사와 학교 부문으로 나누어, 주관단체의 변화, 전형 절차, 선발 인원 확대, 지원 학교의 확대 등 구조적 측면을 비교·분석하였다. 김소연(2016) 역시 제도 운영의 한계와 전문인력 성장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윤정옥과 민현주(2024)는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전문성 영역을, 이병준과 이유리(2014)는 직업 정체성과 수행 역량을, 배혜영(2014)과 이용민 외(2019)는 예술강사의 역할 인식과 학교와의 협력 문제를 다루는 등, 예술강사의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특히 김재은 외(2016)와 장우선(2019)은 예술강사의 수업 경험과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수업딜레마'라는 개념에 주목하거나, 그것이 시간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로 구성되는지를 서사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제도적 진단이나 외재적 요인 중심의 논의에 머물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중등 무용분야 예술강사가 수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딜레마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보지 않고,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서사적 실천의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수업딜레마는 예술강사가 수업 중 직면하는 다양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반복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는 서사적 행위이며, 이는 곧 예술강사의 삶과 교육 실천을 구성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예술강사의 정체성과 실천을 재개념화할 학문적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수업딜레마는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Lampert(1985)에 의해 처음 개념화되었으며, 이후 교실 수업 맥락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수업딜레마는 수업의 계획, 실행, 반성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김근진, 2023; 김주영, 2011; 송정유, 2018), 그 해결은 단순한 문제해결을 넘어 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교육적 성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Korthagen & Kessels, 1999). 이러한 딜레마 상황은 교육과정, 학교 정책, 학습자 특성, 수업 환경 등 다양한 요인과 얽혀 있으며, 교사는 상충하는 가치와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Berlak & Berlak, 1981). 이처럼 수업딜레마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긴장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무용분야 예술강사는 일반 교사와 다른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체를 매개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

는 예술수업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은 학교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비정규직적 지위로 수업을 운영해야 하며, 정규교과 중심의 학교문화와 예술교육의 실현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용분야 예술강사는 수업 내용과 방식, 학생 참여 유도, 교사와의 협력, 학교 조직과의 관계 설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업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은 정책 평가나 일반 교사의 수업딜레마 분석에 국한되어 있었다.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는 예술성과 제도성, 교육성과 현실성 사이의 충돌을 드러내는 고유한 사례로서, 문화예술교육이 처한 구조적 모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된다. 이러한 수업딜레마를 단지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교사의 성찰과 전문성 성장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Lampert, 1985; Suh, 2005; Yoon, 2005). 무용분야 예술강사 또한 수업 중 마주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이는 예술강사를 단순한 기술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적 판단과 감수성을 지닌 전문가로 이해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수업딜레마는 무용교육 현장에서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를 이끌어내는 핵심적 경험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가 수업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의 실제 양상을 시간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추적하고, 그 경험이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교육적 의미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업딜레마를 둘러싼 갈등과 극복 과정이 어떻게 개인의 교육적 신념, 실천 방식, 정체성 구성으로 이어졌는지를 밝힘으로써, 예술강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학교예술교육 정책 및 현장의 실천적 개선을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질문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는 어떠한 수업딜레마를 경험하는가?

둘째,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는 수업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수행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자와 참여자 간 신뢰감 있고 깊이 있는 라포 형성을 전제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Riessman(2008)은 내러티브 탐구가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이며, 이때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편안하고 긴밀한 관계 형성이 연구의 깊이와 질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연구자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는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 다섯 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무용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등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직 예술강사들이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와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을 통해 내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구술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였다. 둘째, 연구 주제인 수업딜레마와 관련된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였다. 셋째, 무용분야 수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한 경험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질적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보다 경험의 깊이와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다섯 명은 모두 수업딜레마를 충분히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춘 이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현대무용 또는 발레를 전공한 예술강사로, 입시 중심의 무용훈련을 거쳤지만 학교무용교육의 특성과 한계를 직접 체감하며, 문화예술교육적 접근을 고민해 온 실천적 경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경제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무용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적 사명을 지닌 인물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OO는 현대무용 전공자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무용분야 1기 강사로서 18년간 중등학교 수업을 지속하며 사업 초기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참여자이다. 이OO, 김OO, 박OO은 모두 발레 전공자로 10년 이상의 예술강사 경력을 바탕으로 중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학생 참여 유도과 수업딜레마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실천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전OO은 현대무용 전공자로, 무용수 및 안무가 활동을 병행하며 중등학교 무용교육 현장의 실제 문제를 깊이 성찰해 온 참여자이다. 이들은 모두 무용수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갈등과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해왔다. 보다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소개

연구참여자	연령	최종학력	전공	예술강사 교육경력	현직
공OO	40대	석사	현대	18년	예술강사
이OO	30대	석사	발레	10년	예술강사
김OO	30대	석사	발레	10년	예술강사
박OO	30대	석사	발레	10년	예술강사
전OO	30대	학사	현대	11년	예술강사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자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 5명을 대상으로 각 2회씩 총 10회 진행되었으며, 1회당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대면 면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정 조율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화상회의(Zoom)를 병행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질문지를 사전에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구두 설명을 진행한 뒤 자발적 참여 동의를 받았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하되,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대화의 흐름을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특히 Seidman(2006)이 제시한 3단계(경험의 맥락, 구체적 경험의 재구성, 경험의 의미화)에 따라 질문을 구성하여 참여자의 삶의 전환점, 감정, 정체성 변화 등을 이끌어 내었다. 면담은 사전에 설정한 중심 질문과 하위 질문을 토대로 <표 2>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2. 연구질문

중심 질문	하위 질문
수업딜레마의 맥락과 경험	어떤 상황에서 수업딜레마를 경험했는가? / 그 딜레마는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감정과 반응을 수반했는가? / 당시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주변과 나누었는가?
의미 구성과 정체성의 변화	수업딜레마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 이 경험이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현재 자신의 수업 철학이나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3. 자료해석

본 연구의 자료해석은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틀과 질적 연구의 귀납적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 자료해석은 자료를 준비하고 범주화하여 조직하고, 코딩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다시 상위 주제로 묶어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Creswell, 2016). 그러나 내러티브 탐구는 전통적인 범주화나 코딩보다는 참여자의 경험을 이야기의 형태로 해석하고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야기의 맥락, 흐름,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심층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네이버 크로바 노트를 이용해 전사한 후 이를 이야기 자료로 삼았다. 전사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참여자의 말투, 감정,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이야기 단위를 식별하였다. 이후 유사한 이야기 흐름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내러티브 탐구의 틀에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야기 속에서 전환점, 갈등, 대응, 의미 구성과 같은 내러티브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로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며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가 수업딜레마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서사화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 공간 모델(시간성, 사회성, 장소성)(Clandinin & Connelly, 2000)에 기반하여 자료를 해석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경험이 시간 속에서 변화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특정한 장소와 맥락에서 발생함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자는 특히 사회적 관계와 환경이 연구참여자의 수업딜레마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재해석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서, 경험의 재구성하고 의미화의 과정을 강조한다. 특히 수업딜레마를 겪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의미를 구성해왔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무용교육자로서의 자아 인식과 교육적 신념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Riessman(2008)은 내러티브 분석을 참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로부터 의미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살기'와 '다시 살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살기'는 무용분야 예술강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수업딜레마 경험을 의미하며, '다시 살기'는 그 경험을 반성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이야기하기'와 '다시 이야기하기'로 구분하여,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경험과 극복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다.

4. 자료의 엄격성 및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엄격성과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자료 엄격성은 자료의 신뢰성, 해석의 강도, 그리고 접근 가능성을 의미하며(Polkinghorne, 1988; Webster & Mertova, 2007),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면담자료는 음성파일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전사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실제 경험에 가깝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장 텍스트

와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와의 교차 확인 과정을 거쳐, 연구자의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추가적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무용학 박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받아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윤리 측면에서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이수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 범위 및 권리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든 참여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관리함으로써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Ⅲ. 이야기하기: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경험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은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제도적 한계와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이다. 본 연구는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그들이 실제 수업 중 경험한 수업딜레마의 유형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될 수업딜레마 경험은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분류되었다.

1. 예술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적 한계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문제는, 제도적 구조가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업 일정의 잦은 변경, 수업 공간의 미확보 등은 무용수업의 몰입도와 연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강사들은 정해진 수업 공간 없이 복도, 일반 교실, 다목적실 등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학생들은 제한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이는 무용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몸을 통한 감정의 표출’, ‘공간 인식’,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을 야기하며,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학교 측은 무용분야 예술교육의 ‘과정 중심적 가치’보다는 ‘성과 중심적 결과물’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발표회나 영상 촬영 등 가시적인 성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그에 필요한 수업 시수의 확보나 공간 제공 등 기본적인 조건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로 인해 강사들은 자신이 학생들과 예술적 성장을 함께하는 ‘교육자’가 아닌, 외부에서 파견된 ‘성과 위주의 기획 사업 수행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며, 직업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문화예술교육이 본질보다는 외형적 성과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수업의 흐름보다 발표회 날짜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뭔가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계획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처음엔 예술가로서 창의적인 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행정적인 요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결국 중요한 건 보고서잖아요. 매 수업 후 정리하고 사진 찍고, 그게 더 신경 쓰이니까 정작 아이들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이중적인 기대는 무용분야 강사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지키는 데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때로는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정서적 안정, 자기표현,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장기적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단기간 내에 수치화되기 어려워, 행정적 평가 기준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무용교육은 시간 속에서 서서히 쌓이는 감각적 경험과 신체 감응의 누적으로 예술적 성장을 이뤄나가기에, 성과 위주의 접근과는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이처럼 제도와 현장의 간극 속에서 강사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의 의미와 그것이 실제로 소비되는 방식 사이의 괴리를 체감하며, 끊임없는 딜레마를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수업 환경의 불편이나 강사의 소외감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곧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라는 제도적 맥락 안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강사들은 자신의 수업이 ‘예술교육’으로서 의미 있는 여정인지, 혹은 단기적 사업의 성과자료로 소비되는 도구에 불과한지는 질문하며, 학생과의 심리적 거리와 예술적 표현 방식을 끊임없이 재고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제도와 정책이 ‘성과’보다 ‘과정’을 존중하고, 예술교육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이 외부 인력이 아닌 학생과 예술적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교육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사춘기 학생들과의 정서적 거리감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은 중학교에서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과 맞물려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강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할 때, 중학생들과의 수업이 정서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강사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하고”,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표현 자체를 민망해하는 분위기”가 중학교 수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고 회상한다. 이는 특정 학년(예: 중학교 2학년)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감수성과 사회적 위계가 형성되는 시기와 맞물려 이 시기의 정서적 반응이 더욱 복잡적이고 예민해졌다는 공통된 체감이었다.

이에 따라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은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존중하고 수업 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신체 움직임 이전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위밍업 활동’이나 ‘신체 접촉 없이도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한 강사는 이렇게 회상한다.

“아이들이 낯선 어른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몸을 드러낸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춤을 몰라서가 아니라, 누가 볼까봐 움츠러드는 거죠.”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또 다른 강사는 무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학생들에게 심리적 장벽이 된다고 지적하며, 교사 스스로의 개방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이들이 처음엔 눈도 못 마주쳐요. ‘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벽이에요. 그 벽을 허물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죠.”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이처럼 강사들은 처음부터 테크닉을 지도하기보다 감정을 중심으로 말없이 표현해보게 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여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었다. 무용이 언어적 소통이 아닌 감각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춘

기의 정서적 억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강사들은 학생들이 무용수업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춤추는 것이 부끄럽다”, “내가 잘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수업 기법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무용이라는 매체의 신체 중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자신의 몸을 드러내야만 하는 수업’에서 오는 감정적 민감성을 고려한 보다 세심하고 섬세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중학생과의 무용수업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서, 정서적 거리와 불안 사이의 틈을 좁혀가는 감정적 조율의 과정이며, 그 속에서 강사들은 학생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수업의 흐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춘기 학생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려는 노력은 무용수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라포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감정적 장벽을 허무는 일은 일회성 전략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으로 가능하다. 이는 특정 학생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용교육의 신체적·정서적 특성과 청소년기의 감수성이 교차할 때 발생하는 고유의 교육적 딜레마로 볼 수 있다. 결국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은 ‘기술의 전달자’이기 이전에, 학생의 정서에 공감하고 기다리는 교육자로서의 태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업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사춘기 청소년들과의 문화예술교육은 강사들에게 특별한 정서적 접근방식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신체 노출이나 감정 표현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강사들은 학생들의 폐쇄적인 태도에 공감하며, 감정을 억누르거나 방어하는 태도가 ‘움직임’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감정적 신뢰를 형성하고자, 강사들은 수업 초반 라포 형성 및 정서 중심의 워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몸의 표현이 중심이 되는 무용 수업에서,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수업의 몰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강사들은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춰 참여를 유도하고, 감정의 흐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유연하게 설계하였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더 멀어져요. 몸으로 먼저 보여주고,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김OO)

이들은 기술의 전달자이기 이전에 학생의 정서에 공감하고 기다리는 교육자로서의 태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기능 학습을 넘어 감정의 해방과 자기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교육의 핵심 가치로 연결되고 있었다.

3. 성과 중심 평가와 문화예술교육 가치 사이의 충돌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은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을 학생의 감각을 일깨우고, 정서적 소통을 유도하며, 자기표현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움직임과 감정의 연결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그 신체를 매개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교육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성과로 여긴다. 그러나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업의 결과를 공연이나 발표회와 같은 외형적 지표를 통해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은 강사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 상충되는 갈등 상황을 야기한다.

한 강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아이 하나가 자기 몸을 눈치 안 보고 움직이게 되는 데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변화는 사진으로 안 남잖아요. 아무도 안 봐줘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이 진술은 무용수업에서 ‘과정 중심’의 가치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 속에서 얼마나 쉽게 약화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공연이나 결과물의 제작을 강제하지 않으며, ‘과정 중심 교육’을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나 교사들은 여전히 결과물 제시를 암묵적으로 기대하거나 발표회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강사들은 이 간극을 해명하고 조율해야 하는 이중의 역할 속에 놓이게 된다.

또 다른 강사는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좋은 공연이 나오면 학교도, 사업기관도 그 수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업의 진짜 성과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열고, 그걸 몸으로 표현해보는 데 있어요. 발표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김OO)

일부 강사들은 성과 중심의 압박이 자신을 ‘교육자’라기보다 ‘성과물 생산자’로 전락시키는 것 같다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고서, 사진, 수치화된 자료만이 교육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때, 수업 중 발생한 감정의 교류나 즉흥적 움직임에서의 감동, 학생의 내면적 변화와 성장과 같은 본질적 성과는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피로를 넘어, 강사들의 자존감과 직업적 정체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용수업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감정의 흐름, 신체의 각성, 타인과의 비언어적 교류로 채워지는 예술적 여정이다. 그러나 정책과 행정은 이러한 교육적 과정을 문서화 가능한 ‘결과물’로 환원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예술교육의 감각적 특수성과는 여전히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한 강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행정은 수치나 사진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그날그날 아이들의 표정, 몸짓, 감정 같은 거죠. 그걸 문서로 어떻게 써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단순히 평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함을 드러낸다.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은 ‘과정의 의미’를 교육의 중심에 놓고자 노력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성과의 가시성’을 요구하며 그 의미를 외면하고 있다. 이 간극 속에서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와 행정의 언어에 균열을 내는 실천적 행위자로 존재한다.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예술강사들은 교육자이자 조율자, 설명자이자 옹호자로서의 이중 현실 속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4. 학교 내 고립감과 소통의 단절

중등학교 무용수업은 정규 교과가 아닌 비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무용분야 예술강사는 학교 내에서 주변적 위치에 놓이기 쉽다. 특히 수업 공간이 고정되지 않거나, 예술강사가 외부 기관에 소속되어 학교에 ‘파견’되는 구조적 특성은 예술강사로 하여금 학교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외

부인'으로 머물게 한다. 이는 수업의 지속성과 교육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본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정규 교사와의 소통 부재, 수업 관련 정보의 단절, 물리적 공간의 부족 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다.

“학교에는 강사 대기실조차 없어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교를 떠나야 했어요. 아이들과 충분한 교감이 쌓이기도 전에 다시 나가야 하니, 항상 어딘가 걸도는 기분이 들었죠.” (무용분야 예술강사 공OO)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와 수업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나누지 못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술강사로서 참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담임선생님이 같이 있어주시지 않으면 학생의 상태나 분위기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자 대응해야 할 때가 많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김OO)

무용수업은 신체 변화와 감정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의 개별적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정규 교사가 수업에 동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술강사들은 매 수업마다 학생과 환경을 즉흥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고립은 단순한 물리적 분리감을 넘어 정서적 소외로 확장된다. 강사들은 수업 중 마주한 학생의 감정 변화나 반응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오롯이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 교육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정서적 피드백’의 순환이 단절되고, 교육 효과의 누적성과 심화가 방해받는다. 또한, 강사들은 자신의 수업 철학이나 교수 방식에 대한 반응을 수용할 통로가 차단된 채, 교육자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성장시킬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무용수업은 단지 기술적 신체 훈련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와 표현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소통의 장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감정을 외화하며, 타인의 움직임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예술의 본질을 경험한다. 그러나 학교 내 협업이 부재한 구조는 이러한 무용수업의 본질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예술강사의 교육 실천이 일회성 프로그램처럼 소비되는 한계로 이어진다.

결국,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이 겪는 고립은 단순한 ‘처우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내실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는 예술강사와 학교 간 유기적 협력 기반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예술강사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규 교사와의 협업을 구조화하는 학교 문화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지지하고, 예술강사의 교육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학교 조직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완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IV. 다시 이야기하기: 수업딜레마 해소를 위한 예술강사의 노력

‘이야기하기’가 각 연구참여자의 수업딜레마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탐구하였다면, ‘다시 이야기하기’에서는 다섯 명의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이 경험한 수업딜레마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무용수업에서 어떠한 딜레마를 경험하였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수업딜레마 경험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따라 수

업딜레마와 해소 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표 3>과 <표 4>는 각각 수업딜레마의 유형과 이에 대한 해소 노력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표 3.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대주제	중주제	세부내용
예술강사와 학교와의 관계	학교와 예술강사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업 시간 정하기	조율하기 어려운 예술강사 스케줄과 학교 일정 교사의 비협조로 인한 일정 조율의 어려움
	학교 내 무용 수업 공간을 찾아서	수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무용교육에서는 비전문가인 교사의 앞서간 마음	무용수업에 대한 교사의 낮은 이해로 인해 발생된 수업 내 과도한 개입
	이루어지지 않는 교사와의 협력수업	무용수업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무관심
	들어줄 수 없는 요구에 학교와 진흥원 사이에 선 예술강사	학교에서 요구하는 발표회(행사) 준비 평가할 수 없는 예술 수업과 평가를 요구하는 학교
예술강사와 학생과의 소통	어색한 학생들과 어색한 무용수업: 움츠러든 몸	감정 기록이 큰 중 학생과의 무용 수업 라포 형성이 안 된 학생과의 창작 수업 수동적인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과의 무용수업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무용수업	남녀공학·남중·여중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
	내가 배운 예술교육과 너무나도 상이한 교육 현장에 홀로서다	이론과 실제 교육 현장의 괴리감
예술강사 당사자의 고민	노련함과 지루함 사이 어딘가에 선 나	오랜 예술강사 활동으로 가진 노련함과 지루함
	고착화된 무용수업을 다시 생각하다	예술강사 홀로 수업 내용을 연구·개발하는 것에 대한 한계 기존 수업 내용에 머무는 반복적이고도 변화 없는 수업
	예술가와 교육자로서의 흔들리는 정체성	무대를 향한 그리움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표 4.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해소를 위한 노력

대주제	중주제	세부내용
예술강사와 학교와의 관계	발표회 및 수행평가 요구와의 조율	수업딜레마 해소를 위해 학교의 요구에 응함
		수업딜레마 해소를 위해 요구를 거절함
예술강사와 학생과의 소통	무용수업의 질 향상과 편견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소통과 협력, 그리고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하기 무용 수업의 편견 해소와 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수업하기
예술강사 당사자의 고민	학생 맞춤형 접근과 성찰을 통한 변화하는 무용수업	학생들을 향한 예술강사의 꾸준한 관심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성찰을 통해 무용 수업을 개선하려는 노력
	개인적 한계를 넘어서 네트워크와 연수로 꽃피우는 무용수업의 혁신과 성장	정체된 수업을 벗어나기 위한 연수 참여와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도 개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수업딜레마 해소를 위한 예술강사의 새로운 도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예술가와 교육자 사이에서 고민하던 예술강사의 유학을 통한 새로운 도전
		예술강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용 안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 및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위한 성찰

1.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경험

1) 예술강사와 학교와의 관계

학교예술강사가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수업딜레마는 교사와의 협력관계에서 비롯된다. 예술강사는 교육의 공동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통의 부재, 권한의 불균형, 역할에 대한 모호함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예술강사의 직무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1) 수업시간 조율의 어려움

여러 학교에 출강하는 예술강사는 각기 다른 학교의 행정 운영 방식, 교사 성향, 그리고 학교 내부 방침에 따라 수업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율은 현실적으로 예술강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보다는, 협력교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시간대나 요일을 고정하거나, 성별에 따라 수업 대상을 분리하는 등 학교의 조건에 따라 강사의 시간표가 경직되면, 다른 학교와의 수업 일정이 충돌하게 되고, 결국 일부 수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강사의 권리와 효율적인 출강 구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에서 원하시는 게 명확했어요. 그렇다 보니 공학이어도 남학생, 여학생 반을 나눠서 여학생만 수업하기를 원하셔서 수업시간을 맞추는 게 더 힘들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표가 중간에 공강이 많았고 그 학교 가는 날은 다른 학교 수업은 못 갔죠.”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이러한 현실은 무용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홍승용(2015)은 예술강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협력교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학교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으로 인해 강사의 일정이 무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강사들의 수업시간 조율이 학교의 내부 사정에 종속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사들이 다른 학교 출강을 포기하거나 비효율적인 공강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장르가 아닌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예술강사를 ‘외부 인력’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인식이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업시간 조율의 어려움은 단순히 일정상의 불편을 넘어,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 현장의 태도와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예술강사를 교육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강사의 일정 조율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출강 조정을 위한 공식적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예술강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수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무용수업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닌, 음악과 감정, 상상력을 결합한 몰입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예술교육의 한 형태이기에, 학생들이 사고하고 집중하며 움직일 수 있는 단독 수업 공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수의 예술강사는 학교의 공간 배정 구조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출강하게 되며, 수업 전에 직접 공간을 확보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사정을 잘 아는 협력교사의 지원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예술강사가 적절한 수업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체육 수업과 공간을 공유하거나, 창고처럼 방치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예술강사가 직접 청소와 정리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기도 한다.

“무용 수업은 시종일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집중하면서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 공간이 필요한데 처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무용수업에 대해 모를 때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힘든 게 있었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공OO)

“무용실이나 기자재에 대해 신경을 안 써주시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무용실이 아예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고, 청소나 스피커 같은 부분도 아예 신경을 안 써주시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체육매트나 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용실에 굴러다녀서 공간 정리를 여러 번 요청을 드렸는데 끝까지 정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이처럼 무용수업에 대한 학교의 낮은 이해도와 협력교사의 소극적인 태도는 수업 환경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소연(2016)의 연구에서도 예술강사의 수업 환경이 학교의 공간 운영 정책과 교사의 인식에 따라 현저히 달라지며, 이로 인해 강사들이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무용은 음악, 장비, 청결한 공간, 집중 가능한 환경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이므로, 물리적 조건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업 효과 전반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예술강사의 수업 공간 확보 문제는 예술교육에 대한 학교의 인식 수준과 행정적 지원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단순히 빈 교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무용 수업의 특성과 필요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공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술강사의 활동이 학교교육과 동등한 가치의 교육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협력교사의 역할 또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간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수업 전 공간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강사의 교육 역량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3) 무용교육에서는 비전문가인 교사의 앞서간 마음

학교 현장에서 예술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력교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교과 교사 역시 자신만의 전공 분야가 있듯이, 무용분야 예술강사 역시 무용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적 철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교사가 강사의 수업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용 수업을 비전문적 시선으로 평가하면서 수업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예술강사는 수업의 주도권을 잃고, 교육과정의 맥락이 무시된 채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상황적으로 학교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고 무슨 기강 잡는 걸 하고 나서 무용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계속 와서 눈을 부라리며 애들을 지켜보고 수업 중간에 불러다가 혼내고... 그리고 위에서도 계속 강사가 오면 투입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역할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왜 이런 수업을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교과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무용 수업의 일부이고 무용의 요소를 놀이 형식으로 바꾼 건데... 겉으로 보기에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의 눈초리도 있고... 잠시 들어와서 내 수업 봐놓고서 무용은 이상한 거 하더라 이렇게 하시니까...”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이처럼 강사의 진솔 속에는 무용 수업에 대한 교사의 낮은 이해가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 예술강사의 수업 방식과 교육철학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몰입해야 할 예술적 활동의 흐름을 중단시키거나, 교육적 의미가 담긴 활동을 단순한 ‘놀이’로 오해하는 태도는 예술수업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유정화(2021)의 연구에서도 예술강사가 학교에 처음 진입할 때, 협력교사의 감독적 시선이나 과도한 개입

이 강사로 하여금 ‘비전문가처럼 취급받는’ 경험을 하게 하며, 이는 예술강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협력교사의 과도한 개입은 단지 강사의 감정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업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체를 탐색하며 예술적 감각을 키워야 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화예술교육은 교과서적인 전달보다는 체험과 몰입, 표현과 해석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지 않는 감독적 시선은 본질적으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력교사는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수업 중 개입보다는 사전 협의와 사후 논의를 통한 간접적 협력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있을 때, 학교예술교육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예술강사의 전문성도 온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루어지지 않는 교사와의 협력 수업

무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술강사의 전문성과 함께 학교 현장에 대한 정보와 학생에 대한 이해가 수업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교사의 지원과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무용수업에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이를 자신의 교육 책임에서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예술강사와의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교사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수업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강사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수업을 시작해야 하며, 외부인으로서의 한계 속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과 수업 몰입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진다.

“중학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협력하려는 자세가 일단 안 되어 있으시고 선생님 자체가 무용 수업은 어렵고 내가 해야 하는 관리 관할이 아니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무슨 수업을 하는지 어떤 수업을 하는지 관심이 크지는 않으신 것 같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그렇고 보통 관심도가 떨어진다.”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원래 수업을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를 외부 강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 말을 안 듣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무용분야 예술강사 김OO)

이처럼 협력교사의 소극적 태도는 단지 예술강사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수업 전체의 흐름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생들이 강사를 ‘외부인’으로 인식하고 신뢰와 권위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업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홍승용(2015)의 연구에서도 예술강사가 학교와 학생에 대한 정보 없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협력교사의 역할 수행 부족과 맞물려 예술강사가 학교 현장에 적응하고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협력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예술강사를 교육의 일시적 보조인력으로 보는 학교 문화와 교사의 인식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이다. 예술강사는 해당 수업의 주체이며, 협력교사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교사에게 명확한 역할 인식을 제공하고, 예술강사와 교사 간의 사전 협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체계적 지원이 마련될 때,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학교 교육 속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5) 들어줄 수 없는 요구에 학교와 진흥원 사이에 선 예술강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도입 초기, 많은 학교들은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술강사

의 수업을 학교행사 준비나 행정업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무용수업을 교육과정 중심이 아닌 공연 작품 제작이나 학교 발표회 준비로 전환하려 하거나, 예술강사에게 체육교과 수행평가의 문제 출제 및 평가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청이 이어졌다. 이러한 요구는 예술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예술강사를 학교와 진흥원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발표나 행사 준비를 무용 수업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부분이 많았는데 교수진과 진흥원에서도 학교 행사 작품을 해줄 의무가 전혀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오히려 예술강사가 중간에서 학교랑 진흥원 눈치를 봐야 되고 중간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조금 스트레스긴 했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공OO)

“수행평가 하죠. 민속무용 그런 걸로 해보긴 했죠... 그래도 예술강사는 그런데 관여하면 안 돼요. 자기 일을 무조건 다 넘기려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수행평가 하라고 말하는 것도 해주는 것도 하면 안 돼. 그럼 다음에 오는 예술강사가 또 해야 되고...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이 갈 길을 잃는 거지.” (무용분야 예술강사 김OO)

실제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이러한 경험들은,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을 정규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기보다, 기존 업무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무용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 홍승용(2015)은 예술강사에게 졸업앨범 사진 촬영, 행사 작품 제작, 무대 준비 등 본래 수업과 무관한 업무를 요구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민정(2021) 또한 국악 수업에서 학예발표회 준비나 사진 촬영을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사례를 보고하며, 예술강사가 학교의 부수 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타 예술 장르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예술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철학을 무시할 뿐 아니라, 예술교육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한 번 수용된 비정상적 요구는 관행이 되어 후속 강사에게도 부담으로 이어지며, 결국 예술강사 본연의 교육적 역할은 흐려지고, 예술교육의 질은 저하된다. 따라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이해 연수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강사에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보장하는 행정적 장치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술강사는 예술교육의 주체로서, 행사 준비 인력이 아닌 교육자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2) 예술강사와 학생과의 소통

예술강사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는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에서 비롯되는 수업딜레마이다. 이러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수업의 질뿐만 아니라 예술강사의 직무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무용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은 수업의 몰입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학생의 발달 특성상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래 및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예술강사가 이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예술강사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수업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깊은 관계를 쌓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강사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학생들의 반응 부족이나 소극적 태도에 부딪혀 수업의 흐름이 방해받기도 한다.

(1) 어색한 학생들과 어색한 무용수업: 움츠러든 몸

무용수업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집중과 사고, 감정의 흐름을 반영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예술적 수업이다. 특히 즉흥과 창작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움직임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 즉 라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예술강사는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서적 연결을 맺을 충분한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춘기라는 민감한 발달 단계에 놓인 중학생들은 감정 기록이 크고 또래 관계나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특성은 무용수업 초반에 수업에 대한 거리감과 신체 노출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움츠러든 몸의 태도로 나타나며, 학생들이 수업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반항적 태도나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예술강사는 수업의 흐름을 유지하고 몰입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와 친하지도 않고 아이들끼리도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 수업을 하니깐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어떤 학교는 너무 폭력적이라서 인상이 깊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떠들고 아이처럼 까부는 거는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데 빈정거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분노를 일으키게 하죠.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욕하고 빈정거리도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이처럼 무용수업에서의 라포 형성의 어려움은 단지 정서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수업의 몰입도와 교육 효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김근진(2023)은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수법이라도 교육적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예술강사가 단순한 기술 전달자가 아닌, 정서적·신체적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교육의 실천자임을 시사한다. 결국 무용수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감정과 관계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강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수업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정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교육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무용수업

중학교 시기부터는 남중, 여중, 공학 등 학교 형태에 따라 수업 환경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무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태도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은 신체와 감정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또래의 시선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학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를 의식하며 움직임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일이 잦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수업의 참여도와 몰입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서로 장난을 많이 치고 남녀 공학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말은 편하게 하지만 서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성향에 따라 소심한 학생들은 부끄러워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공OO)

“여자애들은 워낙 춤 같은 걸 좋아하고 남자애들이 없으니까 예뻐 보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애도 남성스럽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남녀공학이면 이성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예민해져서 거기서 춤 추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무용분야 예술강사 김OO)

이처럼 학생들의 성별과 성향은 무용수업에서의 참여 양상에 변화를 일으킨다. 신체 표현과 창작활동을 요구하는 무용 수업은 특히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심리적 거리나 부끄러움, 포레 의식이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선영(2008)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무용수업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 태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표현적인 반면, 남학생은 수업을 장난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현상과 일치하며, 성별에 따라 무용수업 참여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적 맥락을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무용수업에서는 성별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수업 환경 조성 및 교수법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서로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강사는 신뢰 기반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활동의 단계와 목표를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저항감을 낮추는 전략이 요구된다. 무용수업은 신체를 통한 표현과 해석의 과정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선행될 때 학생들의 참여도와 교육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예술강사 당사자의 고민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과 실제 교실 현장 사이의 간극은 예술강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개인적 수업 딜레마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괴리는 수업의 질뿐 아니라, 예술강사의 정서적 안정성과 직무 지속 의지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무용전공자들이 예술강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받는 연수는 이론 중심이거나 제한된 실습 위주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교 현장의 복잡한 교육 환경과는 괴리감을 드러낸다.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수업의 흐름을 관리하는 역량, 교육 공간의 제약 등은 예술강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거나 연습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출강 초기, 특히 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한 강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며, 자신이 준비해 온 문화예술교육의 이상과 현장의 요구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반면, 출강 경험이 누적된 예술강사라 하더라도 매 수업을 혼자서 계획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구조적 고립감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한다. 강의안을 공유하거나 동료와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업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딜레마는 계속된다. 나아가 많은 예술강사들은 예술가로서의 창작 활동과 교육자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모색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한 업무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술가의 감성과 교육자의 실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며, 이는 예술강사제도의 질적 개선과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1) 내가 배운 예술교육과 너무나도 상이한 교육 현장에 홀로서다

무용분야 예술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체 훈련 중심의 무용교육을 받아온 전문인으로, 대부분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훈련 형태의 무용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출강 전 연수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을 통해 이론적으로 비전공자를 위한 무용교육 방법을 학습하였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생들과의 실제 수업에서는 이론과 현장의 괴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출강 초기에는 수업 계획을 구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실제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 흐름을 조율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창작 그거 나도 처음 배울 때는 신체 인지부터 해야 된다. 손 머리 발부터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움직이게 해야 하는 거지 무용에 대한 거리낌 없게... 나도 처음에는 신체 인지부터 교안에서 배운 대로 가르쳤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하면서 안 거지. 애들은 배워도 절대 안 움직이지...” (무용분야 예술강사 김OO)

“대학에서 무용교육을 커리큘럼으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용학과에서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전공자들은 잘 이해하고 움직이는데 비전공자 학생들은 다르죠.”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대부분의 예술강사들은 출강 초기, 학생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는 단순한 교수법의 한계를 넘어, 예술강사로서 오랫동안 체화해 온 전문무용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정체성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김소연(2016)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는 대상에 맞지 않는 교육 콘텐츠와 낮은 동기유발, 그리고 현장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용 교육이 전공자 중심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비전공 학생들이 무용을 쉽게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재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예술강사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학교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보다 실천적인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노련함과 지루함 사이 어딘가에 선 나

출강 초기에는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면, 오랜 기간 예술강사로 활동한 이들은 다른 성격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바로 노련함에서 오는 익숙함과, 그로 인한 정체감 또는 지루함이다. 출강 경험이 누적되며 커리큘럼은 점차 안정되고, 수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만, 반복되는 수업 구조와 내용 속에서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갈증이 생겨난다.

“반복되는 것도 많아서 고민이죠. 어떤 새로운 걸 더 재밌게 아이들처럼 해볼까 고민하는데 format은 비슷하게 늘 가져가지는 것 같아요. 그림이나 수업자료 같은 거는 조금씩 바뀔지 몰라도 format은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5년 차쯤 되니까 계속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게 저 스스로 너무 지겨웠어요. 아이들은 저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수업인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많은 예술강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끊임없이 다듬고 보완해왔으며, 그 결과 일정한 안정성과 수업 흐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안정감은 때때로 창의성의 정체, 혹은 교육자로서의 소진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매 학기 새로운 학생들과 만나지만, 강사 본인에게는 반복되는 콘텐츠와 형식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수업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에도 한계가 찾아온다. 이러한 현상은 박민선(2013)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교사 개인에게 축적된 교수 경험은 반복과 누적을 통해 형성되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쉽게 변화하거나 새로워지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예술강사 역시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구조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장기 출강 강사들이 겪는 ‘노련함 속의 지루함’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예술강사 지원 체계가 장기 활동자들을 위한 재교육,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창의적 리소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도 볼 수 있다.

(3) 고착화된 무용수업을 다시 생각하다

학교 교사들과 달리 예술강사는 하나의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학교에 배정되어 혼자 수업을 운영하는 구

조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고립된 업무 환경은 예술강사에게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수업 개선의 기회를 제한하며, 수업 중 발생하는 고민과 딜레마를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인다. 이로 인해 예술강사들은 수업이 일정한 틀에 갇히고, 자신도 모르게 고착화된 수업 방식을 반복하게 되는 현실에 부딪히곤 한다.

“수업을 혼자 하다 보니 고착이 되어 있긴 해요... 그렇게 한 5~6년을 예술강사 혼자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예전에 코로나 커지기 전에는 부산에서도 그 역량 강화 수업을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높은 기수가 밑에 기수들한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그런 연수가 분명히 있었고 경남권에서도 한 번씩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전부 사라져서 너무 아쉬워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실제로, 연수나 동료 예술강사들과의 교류 없이 혼자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예술강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점검하고 재구성할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수업이 자연스럽게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강사들은 수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피드백, 동료와의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전문적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홍승용(2015)의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존 강사와 신규 강사 간의 네트워크 형성,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현장 노하우와 수업 아이디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예술강사의 고립된 수업 구조에서 벗어나, 집단적 성찰과 협력적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된다. 따라서 예술강사의 고착화된 수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창의성 부족이나 의지 문제로 보기보다는, 구조적 지원 시스템의 부재와 연결지어 인식해야 하며,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현장 중심의 수업 교류, 동료 간 피드백 체계 마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술가와 교육자로서의 흔들리는 정체성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해마다 갱신되는 프로젝트성 단위의 계약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술강사들은 매년 고용 불안에 직면하며,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수업 개발을 이어오더라도 이에 대한 가시적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는 예술강사로 하여금 성취감과 만족감의 저하, 장기적인 직무 지속 의지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일부 강사들은 다시 예술가로서 무대에 서고자 하는 열망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초창기인 2006년부터 10년 사이에 변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시수가 반이나 삭감되고 매년 고용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으니까 예술강사 입장에서는 수업에 마음 편히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연수를 계속 받으면서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의문도 들고 그러면 또 불안해지고 그렇죠.” (무용분야 예술강사 공OO)

“10년차 정도 되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진급이라는 게 있고 그 진급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데 매년 챗바퀴 돌 듯이 비슷하게 돌아가요. 근데 10년 차가 돼도 매년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니까 그러면 또 10년이 지나도 나는 이 자리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옛날에 비하면 진짜 열정이 많이 떨어져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지금 나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쪽 가면 될 것 같은데 뭔가 가슴속이 점점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나랑 안 맞으면 자꾸 마음이 빈다고... 결국 자기가 가야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김OO)

이처럼 예술강사들의 서사 속에는 매년 반복되는 고용 구조와 진전없는 처우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 직무 소진, 자아실현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교육자로서 반복되는 수업 루틴 속에서 자율성과 성장을 경험하기 어렵고,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지는 이중의 긴장 속에서 강사들은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김소연(2016)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무용 예술강사의 불안정한 처우 구조가 직무에 대한 사명감 저하와 책무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예술강사의 역할 정립과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반복되는 교육 활동 속에서도 예술강사들이 자아를 소진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 사회적 인정,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해소를 위한 노력

1) 예술강사와 학교와의 관계

앞서 무용분야 학교 예술강사들이 수업 시간 조율, 수업 공간 확보, 협력 교사의 과도한 개입 또는 무관심, 수업 시간 내 학교의 행사 준비 및 수행평가 요구로 인해 겪는 수업딜레마를 탐색했으며 이에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탐색하였다.

(1) 발표회 및 수행평가 요구와의 조율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초기에는 무용수업이 학교 행사 준비나 시험문제 출제, 수행평가 등의 행정적 요구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본래 예술교육의 취지와 수업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며, 많은 예술강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흥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진흥원의 개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강사들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 이후 진흥원과 예술강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교 현장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고, 무용수업의 독립성과 교육적 목적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요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유사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초창기 7~8년 정도는 발표회나 행사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간혹 그런 요청을 하시면 수업에서 하는 외국 민속무용이나 그런 것들 중에 학생들이 하기 제일 쉬운 거, 하고 싶은 걸 선택하라고 하셔서 하나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정도이지 따로 발표 준비를 해드린다고나 그러진 않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공OO)

“사립학교는 이런 부분을 아직도 잘 이해는 못하셔서 자기들 학교 방식 위주로 수업을 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진흥원에 진짜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이걸 시간외 보수를 받을 수도 없고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진흥원은 일단 학교에 전화해보겠다 조율해 보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잘 안됐던 것 같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이처럼 예술강사들은 지침에 따라 학교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일부 강사들이 수업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전체 대응의 일관성에 혼선을 주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학

교와의 관계에서 일관된 태도 유지가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딜레마는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김성혜와 강주희(2018)의 연구에서도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사전 조율과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당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술강사들의 집단적이고 일관된 대응 태도를 통해 학교의 비정상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사업의 본래 취지와 교육적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해당 딜레마가 현재까지도 진행형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2) 예술강사와 학생과의 소통: 라포 형성과 수업 몰입을 위한 전략적 실천

중등학교 무용수업에서 예술강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수업딜레마 중 하나는 감정 기복이 큰 중학생들과의 라포 형성, 즉흥 및 창작 수업에 대한 심리적 저항, 낮은 수업 참여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참여 태도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섯 명의 예술강사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했는지, 그 시도와 결과를 탐색하였다.

중학교에 출강하는 예술강사들은 발달 특성상 감정 기복이 심하고 타인의 시선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중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에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강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학생 이름을 빠르게 외우기, 친근한 신체 언행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기, 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기억해주기 등 일상적인 접촉 속에서 친밀감을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즉흥이나 창작 수업과 같이 자신을 즉시 드러내야 하는 활동에서는 학생의 심리적 문이 먼저 열려야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강사의 언어적·정서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사 중심의 민속무용 수업을 수업 도입부에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처음부터 창작이나 자유 표현 활동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비교적 구조화된 움직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 구성 전략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무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나아가 무용에 대한 편견—예를 들어 남학생이 무용을 부끄럽게 느끼는 태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더불어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가 깊어질수록 수업 몰입도가 향상되며, 때때로 수업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강사들은 수업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차시 내용을 미리 도입하거나 보충 수업을 구성하는 등 수업의 밀도와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운영을 보여주었다.

“학생들 이름을 빨리 외우거나 톡톡거리는 걸 받아주거나 학생들하고 친근해지려고 초창기에 노력을 좀 많이 하죠. 특히 즉흥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강사의 언어도 많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와서 얘기할 때 들어주고 잘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공OO)

“저는 무조건 처음 수업은 민속무용 파트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교사 중심 수업이 되면서 한 명씩 봐주면서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마무리로 한국무용 수업을 하는데 저와 친해진 뒤에 자기들한테 낯선 움직임을 하면 약간 우스꽝스러워 하면서도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계획을 바꿔서 하나가 괜찮았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면 저는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더 끌고 나갔던 것 같아요. 창작 수업을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발표까지 다했는데 20분이나 남았으면 다음 차시에 할 주제를 미리 당겨서 더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아이들이 가진 무용이라는 편견을 좀 부순 것 같은 느낌..? 남학생을 예로 들면 무용은 여학생만 하는 거 아니냐 아직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편안하게 대하고 무용 수업도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게 해줄 거야라는 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무용을 즐기고 무용도 내가 재밌어하네 라는 걸 느끼고 편견을 부수는 정도가 된 것 같고 사실 이 정도도 좀 큰 것 같긴 해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이처럼 무용수업에 출강하는 예술강사는 친밀한 접근, 유연한 수업 설계, 학생 반응에 대한 민감한 대응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업 초기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친근한 태도로 다가가되, 학생들의 행동이 과할 경우에는 단호한 지도와 수업 흐름 조절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백채은(2024)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 대화하기, 거리두기, 협력하기 등의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중등 무용 수업에서 예술강사는 단순한 기술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지도자이자 수업의 설계자로서 학생들의 감정과 참여 태도에 반응하고 이를 적절히 조율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3) 예술강사 당사자의 고민

중등학교 무용 예술강사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해온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내적 딜레마를 경험해왔다. 출강 초기에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반복되는 수업 내용으로 인해 지루함과 권태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동료 예술강사와의 교류 부족은 수업의 질적 향상이나 고민 공유의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무용교육가로서의 역할과 무용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한 예술강사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변화와 성찰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학생 맞춤형 접근과 성찰을 통한 변화하는 무용수업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은 대학 및 진흥원 연수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이수한 후 학교 현장에 출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은 사전 교육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출강 초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과 흥미도에 따라 수업 집중도가 크게 달라졌으며,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현장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강사들은 수업 난이도를 조절하고, 즉흥·창작 활동보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민속무용을 수업 초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재구성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저항을 낮추기 위해 티칭 언어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구축해 나갔다. 현재는 수업 운영에 익숙해진 상태지만, 여전히 연수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제가 생각을 바꿔서 수업 구성을 할 때 무조건 순서가 있는 민속무용을 먼저 하면서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나서 창작 수업을 하는 걸로 수업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들도 잘 따라 오더라고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못 움직이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꿈다락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티칭 언어를 고쳐나갔던 것 같아요. 대단한 움직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

의 문제였던걸 깨달았을 때 좀 더 아이들이 몸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걸 느끼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초임 예술강사들은 이론과 실제 수업의 괴리, 교육 현장과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수업 초반에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과의 라포 형성이 수업의 핵심임을 깨닫고, 민속무용과 같은 교사 주도형 수업을 먼저 진행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창작과 즉흥 수업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업 전략을 수정해 나갔다. 수업 난이도 조절과 티칭 언어의 변화는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예술강사가 지속적인 성찰과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조영미 외(2019)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단순한 테크닉의 전달을 넘어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는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지점이다.

(2) 개인적 한계를 넘어서 네트워크와 연수로 꽃피우는 무용수업의 혁신과 성장

본 연구에 참여한 예술강사들은 10~20년간 중등학교 무용수업에 꾸준히 출강해왔으며, 수업 운영에 익숙한 반면, 장기적 반복으로 인한 수업의 고착화와 권태감이라는 공통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업에 적용하거나, 협력 교사 및 교장과 소통하며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수업의 방향을 조정해 왔다. 또한 진흥원 연수나 무용교육 연구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수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사 개인이 혼자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는 존재한다. 이로 인해 수업 내용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강사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진흥원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거를 깨려고 해본 게 꿈다락을 하면서 더 다양하게 해보려 생각이든 것 같아요. 정형화되게 내가 탁탁 찌서 연수 자료집 안에 있는 거 이것도 똑같이 가르쳐야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깨지고 꿈다락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조금씩 바뀌어 나간 게 지금인 것 같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이OO)

“그럼요! 커뮤니티가 있으면 나 스스로도 발전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약간 고착이 되어 있는 느낌도 있어서 커뮤니티가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엄청 많으니까 좋죠. 그게 없어서 저는 세미나를 많이 활용 했던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을 다시 정화하고 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해 가면서 또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해가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이처럼 오랜 경력의 예술강사들은 수업의 고착화와 창의성 저하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수와 타 교과와의 융합, 자체 세미나와 연구회 참여 등의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 역량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업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료 예술강사 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운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예술강사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서, 수업 역량의 강화와 정체성의 확립, 나아가 예술교육자로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유정화(2021)가 예술강사들이 수업 개발의 어려움을 다른 예술강사, 교사,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극복하고 개인적 성장을 이룬다고 분석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3) 수업딜레마 해소를 위한 예술강사의 새로운 도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10~20년간 중등학교 무용수업에 참여해 온 예술강사들은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분명한 보람을 느껴왔다. 그러

나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는 구조,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부재,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갈망은 이들에게 허무감과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반복되는 수업에서 오는 지루함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해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게...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것과 정규직처럼 일하는 것은 책임감이나 마음가짐부터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런 처우 개선을 해준다면 예술강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의 질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수업의 질과 이 사업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교육이 되려면 고용 부분이라든지 강사가 일단 불안하지 않았으면...” (무용분야 예술강사 박OO)

“저는 예술강사를 꼭 할 생각은 없어요. 여기에서 만족감은 저는 충분히 찾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인 교육으로 살려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춤을 다시 추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 전공을 살려서 누군가의 발레 선생님이로서 또 살로 싶기도 하고 또 그거 아니고는 그냥 가족과의 화목한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용분야 예술강사 전OO)

연구참여자들은 예술강사로서의 역할에 헌신하면서도, 반복되는 수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일부는 무대로의 복귀나 전공자 양성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예술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지만, 열악한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다. 이처럼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직업적 비전은 예술강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강사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된다면, 예술강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예술강사의 직업적 어려움과 정체성 변화는 이병준, 이유리(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예술강사가 교육자와 예술가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 갈등과 그에 따른 정체성 재정립의 과정을 분석하며, 제도적 보완과 현장 중심의 지원이 예술강사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공유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 5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수업 딜레마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실천의 경험을 따라가며, 예술교육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여정을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교육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신의 수업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수업에 대한 권태, 학생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예술가와 교육자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 제도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다.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예술강사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의 정서와 감각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수업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곧 예술교육이 관계 중심의 실천임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며, 강사들은 자신만의 언어와 방법으로 수업을 재구성하면서도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감정의 동요와 교차하는 그들의 실천이 단지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예술적 실천임을 드러내었다. 또한,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역할을 해온 강사들은 자신 안에서 고여버린 감각과 열정을 흔들어 깨우고자 연수에 참여하거나 타 교과와의 협업을 시도하였다. 이

들은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낯선 환경에 던지기도 하고, 다른 강사들의 수업을 보며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부 강사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했으며, 이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업 고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천이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나타났다. 예술가로서의 삶과 교육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은 제도적 불안정성과 낮은 처우 앞에서 흔들리기 쉬웠으며, 매해 재계약이라는 구조 속에서 강사들은 자기 삶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어떤 참여자는 예술가로의 복귀를, 또 다른 이는 가족과의 삶을 선택지로 두며, 예술교육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물음을 던졌다. 이처럼 예술강사들의 내러티브는 단지 한 직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예술가로, 교육자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선택과 고민의 서사로 읽혀야 한다.

따라서 예술강사의 내러티브에서 도출되는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강사들이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 수업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을 단순한 교수법의 개선으로 보지 않고, 예술교육의 본질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예술강사의 실천을 '정책 수단'이 아닌 '인간적 관계의 실천'으로 바라보게 한다. 둘째, 반복과 고착의 딜레마를 풀어내기 위해 예술강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며, 이 안에서 수업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실천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예술강사들이 단지 교육 노동자가 아니라 예술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예술교육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며, 결국 학생들에게도 지속가능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연구는 무용분야 예술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예술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실천이 누구에 의해, 어떤 조건 속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그리고 예술강사의 서사가 교육현장의 구조와 마주하며 만들어낸 균열과 가능성은, 예술교육 정책이 개인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중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 5인의 내러티브에 집중하였기에, 예술강사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예술강사뿐 아니라 협력교사, 학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등 예술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을 포괄하는 다층적 내러티브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교육이 작동하는 복합적 관계망과 그 안에서의 실천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예술강사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추적하는 종단적 내러티브 탐구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예술강사의 삶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며, 어떤 사건이나 관계가 그들의 실천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강사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연구(participatory research)를 통해, 강사들이 연구의 대상이 아닌 동료 연구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 설계 또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예술강사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차원을 넘어, 예술강사 스스로가 지식생산의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정(2021). **국악수업 실태조사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강지은(2009).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변화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김근진(2023). **특성화고 초임 체육교사의 수업딜레마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김성혜, 강주희(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교사 요구 분석. **미술교육논총** 32(2), 1-29.
- 김소연(2016). **학교 무용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소연(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천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 학교 무용 예술강사 지원 사업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7(4), 1-32.
- 김영미(2010).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좋은 무용 수업**.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재은, 윤필규(2018). 학교 예술강사의 교직경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과정: 무용분야 예술강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4), 305-326.
- 김재은, 노미라, 윤필규(2016). 무용예술 강사의 교직경험에 나타난 직업적 갈등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1-19.
- 김주영(2011). 초등교사의 국어수업딜레마에 대한 사례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313-345.
- 김지안, 홍애령, 정경원(2022).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판례평석의 법리적 해석과 개선방안 모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217-226.
- 곽민선(2013).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배혜영(2014). 예술강사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무용예술강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4), 97-126.
- 백재은(2024). **초등 무용 수업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예술강사의 인식과 지도 방안 탐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상남도
- 성유빈(2025).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무용분야 학교예술강사의 수업딜레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북특별자치도.
- 송정유(2018).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와 그 대응양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유정화(2021). **학교 예술강사 되어가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윤정옥, 민현주(2024).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예술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평가영역탐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2(3), 244-261.
- 이병준, 이유리(2014). 예술강사의 직업생애사 연구-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5), 1-20.
- 이선민, 이지영, 윤정옥, 김은혜(2020). 수혜자 관점에서 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무용학회지**, 20(1), 149-165.
- 이선지(2010). **예술 무용 강사 지원 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점 모색**.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이선영(2008). **중학교 무용 수업에 대한 대안 탐색**.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용민, 김다움, 박숙자(2019). 초등무용수업 현장에서 예술 강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론.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5(2), 51-63.
- 장우선(2019).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무용 예술강사의 지도경험 성찰. **무용예술학연구**, 73(1), 161-174.
- 조영미, 남영희, 이순옥(2019).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4(2), 23-47.
- 홍승용(2015).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전라남도
- 홍하나(2013).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아무용 연구 동향 분석**. 국내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서울
- Berlack, A. & Berlack, H. (1981). *Dilemmas of schooling*. Londres: Methuen.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Korthagen, F. & Kessels, J. (1999). Linking theory and practice: Changing the pedagogy of teacher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28(4), 4-17.
- Lampert, M. (1985). How do teachers manage to teach? Perspectives on problems in practice. *Harvard Educational Review*, 55(2), 178-195.
-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Albany, NY: SUNY Press. (강현석 외 역.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서울: 학지사.
-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Sage.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Teachers College Press.

- Suh, G. (2005). Teachers dilemma and the meaning of teach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8(2), 1-40.
- Webster, L.,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An introduction to using critical event narrative analysis in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NY: Routledge. (박순용 역.(2017). 연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 서울: 학지사
- Yoon, H. (2005). A use of dilemma episodes in scienc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5(2), 98-110.

ABSTRACT

A study on the Instructional Dilemmas of Dance Teaching Artists in Secondary Schools[†]

Yubin Sung* · Misung Hong** Woosuk University ·
Hyejeon Hong*** Seowo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instructional dilemmas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dance instructors and their practical efforts to resolve them. It explores how these instructors reconstruct educational meaning and achieve growth despite repetitive class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Narrative inquiry was employed as the research method, and five middle school dance instructors with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ata transcription, meaning unit analysis, categorization, and narrative reconstruction. The findings revealed three major categories of instructional dilemmas. First, conflicts with the school environment, such as schedule adjustments, lack of teaching spaces,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 from cooperating teachers; second, difficulties in the teaching process, including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students, low engagement in creative classes, and interactions with maladjusted students; and third, personal internal factors, such as repetitive class content, job insecurity, and confusion about professional identity. To address these dilemmas, the instructors pursued professional growth through participation in training programs, efforts to improve classes, and communication with fellow instructors. Some also sought career transitions, such as regaining their identity as artists or nurturing future professionals.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dance instructors are not merely drill coaches but active agents of educational practic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ir experiences and voices are reflected in policy, an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ir narratives can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a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arts instructors.

Key words : middle school, School Arts Instructor, dance education, instructional dilemma, narrative inquiry

논문투고일: 2025.06.09

논문심사일: 2025.07.11

심사완료일: 2025.07.28

[†] This study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2025 Master's Thesis at Woos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itled "A Study on the Instructional Dilemmas of Dance Teaching Artists in Secondary Schools,"

* Graduated from Woos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Professor, liberal arts college, Woosuk University

*** Professor, Major in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Seowon University